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159>

JCCT 2024-3-20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elf-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Self-leadership 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변은경*

Eun Kyung By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B시의 간호대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3.63±0.52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r=.677, p<.001$), 자기주도성($r=.573, p<.001$), 셀프리더십($r=.654, p<.001$)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r=.517, p<.001$), 자기주도성($r=.665,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주도성은 자기효능감($r=.491,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beta=.435, p<.001$), 자기주도성($\beta=.133, p=.036$), 셀프리더십($\beta=.341, p<.001$)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57.5%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과 셀프리더십을 고려할 필요성을 나타냈다.

주요어 : 셀프리더십,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self-leadership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to enhance resili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199 nursing students in B city. Data analysis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degree of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was 3.63±0.52. Resilience of the subjec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r=.677, p<.001$), self-directedness ($r=.573, p<.001$), and self-leadership ($r=.654, p<.001$). Self-leadership of the subjec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r=.517, p<.001$), self-directedness ($r=.665, p<.001$). Self-directedness of the subjec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r=.491,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s resilience were identified as self-efficacy ($\beta=.435, p<.001$) and self-directedness ($\beta=.133, p=.036$), self-efficacy ($\beta=.341,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57.5%.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nursing students' resili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lf-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self-leadership.

Key words : Resilience, Self-directedness, Self-efficacy, Self-leadership,

*정희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2일, 수정완료일: 2024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월 31일

Received: January 2, 2024 / Revised: January 21, 2024
Accepted: January 31, 2024
*Corresponding Author: byunek@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무엇보다 대학생살을 거쳐 대부분 미래의 간호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게 된다. 또한 학업과정에서 인문사회과학의 교양과 전공학문, 교과외 활동 등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엄격한 윤리의식 함양에 대한 요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1]. 또한 전공 특성상 임상실습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임상현장에서의 학생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이론과 실무의 차이, 실습기회의 부족, 간호지식 및 기술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많은 과제와 바쁜 실습일정 등이다[2].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력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발달과정으로 회복탄력성에 의해 축적된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적응능력과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고 어려운 난관에서도 잘 견뎌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환경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4].

회복탄력성은 외부자극과 스트레스 및 역경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성, 내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을 의미한다[5]. 따라서 학업과 임상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회복탄력성을 높이므로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준비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관련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동기부여, 인지 자원 및 행동과정을 집결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6]. 개인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선택한 행동은 장기간 지속되며 어려운 과제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7]. 이공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에 직접효과를 나타냈고[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9]. 갈등이나 역경의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개인의 삶 전반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회복탄력성[10]은 자기

효능감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회복탄력성과 또 다른 관련 요인으로 학습과 관련된 자기주도성이 있다. 자기주도성은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개인이 스스로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학습을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11]. 자기주도성과 회복탄력성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 연구는 없으나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신념과 믿음인 학업적 자기효능감[12]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13]를 통해 자기주도성과 회복탄력성과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행동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14].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신과 주변환경을 잘 통제하며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고[15-16]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간호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회복탄력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간호학과 신입생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5][18].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19],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20] 등이 확인되었다. 회복탄력성은 학업이나 임상실습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에게 힘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이러한 극복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적응능력과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21]. 또한 간호대학생의 당면하는 이론적 학습과 실습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응과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임상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회복탄력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3년 6월 1일에서 6월 1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B시에 소재한 대학교 간호학과장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참여하는 도중에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2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5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6부를 제외한 19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Kim, Cha[22]의 도구를 Kim[23]이 일부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0.90으로 나타났다.

2)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은 Guglielmino[24]가 개발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SDLRS)를 바탕으로 Kim 등[25]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SDLRS-K-96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Lee[26]의 도구

58문항 중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의 1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의 18문항을 사용한 Lee, Moon[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28]의 셀프리더십 도구를 바탕으로 Kim[2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 도구는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총 18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5로 나타났다.

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Reivich, Shatté[30]가 개발한 도구를 Kim[31]이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한 회복탄력성 도구(KRQ-53)를 Bae[32]가 재수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각 하위영역은 9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e[3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통제성 Cronbach's α 는 .86, 사회성 Cronbach's α 는 .86, 긍정성은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전체 199명으로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 155명(77.9%), ‘남학생’ 44명(22.1%)이었다. 연령은 ‘21-22세’ 108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64명(25.9%), ‘23-25세’ 27명(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56명(28.1%), ‘2학년’ 55명(27.6%), ‘3학년’ 48명(24.1%), ‘4학년’ 40명(20.1%)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음’ 140명(70.4%), ‘기독교’ 31명(15.6%), ‘불교’ 23명(11.6%), ‘가톨릭교’ 5명(2.5%)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거형태는 ‘자택’이 124명(62.3%)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1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55	77.9
	Male	44	22.1
Age (year)	≤20	64	32.2
	21-22	108	54.2
	23-25	27	13.6
Grade	1	56	28.1
	2	55	27.7
	3	48	24.1
	4	40	20.1
Religious	None	140	70.4
	Christian	31	15.6
	Buddhism	23	11.5
	Catholic	5	2.5
Residential type	Home	124	62.3
	Dormitory	46	23.1
	Self-boarding	25	12.6
	Other	4	2.0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평균 3.73±0.53점, 자기주도성 평균 3.45±0.59점, 셀프리더십 평균 3.53±0.50점, 회복탄력성 평균 3.63±0.5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3).

표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의 정도

Table 2. Degree of ego-resilience, self-directed learning, self-leadership, resilience(N=199)

Variable	M±SD	Min	Max
Self-efficacy	3.73±0.53	1.74	5.00
Self-directed learning	3.45±0.59	1.22	5.00
Self-leadership	3.53±0.50	1.67	5.00
Resilience	3.63±0.52	1.89	5.00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1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silience	
		M±SD	t/F(p) scheffé
Gender	Female	3.66±0.54	1.444 (.150)
	Male	3.53±0.45	
Age (year)	≤20	3.62±0.52	.909 (.405)
	21-22	3.67±0.54	
	23-25	3.52±0.42	
Grade	1	3.61±0.47	1.625 (.185)
	2	3.61±0.60	
	3	3.76±0.48	
	4	3.53±0.51	
Religious	None	3.66±0.53	.328 (.805)
	Christian	3.58±0.51	
	Buddhism	3.58±0.51	
	Catholic	3.54±0.52	
Residential type	Home	3.63±0.52	.108 (.955)
	Dormitory	3.62±0.41	
	Self-boarding	3.67±0.71	
	Other	3.53±0.25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r=.677, p<.001$), 자기주도성($r=.573, p<.001$), 셀프리더십($r=.654,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r=.517, p<.001$), 자기주도성($r=.665,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주도성은 자기효능감($r=.491,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표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self-directed learning, self-leadership, resilience(N=199)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Self-leadership	Resilience
	r(p)			
Self-efficacy	1			
Self-directed learning	.491 (.115)	1		
Self-leadership	.517 (.528)	.665 (<.001)	1	
Resilience	.677 (.001)	.573 (<.001)	.654 (<.001)	1

표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resilience(N=199)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73	.195		1.919	.057
Self-efficacy	.431	.054	.435	7.937	<.001
Self-directed learning	.117	.056	.133	2.111	.036
Self-leadership	.353	.066	.341	5.345	<.001
Adjuste $R^2=.575$ F=94.979 p<.001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정규성과 선형성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511-.694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441-1.959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25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4.979,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은 .575로 셀프리더십을 57.5%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β =.435, p<.001), 자기주도성(β =.133, p=.036), 셀프리더십(β =.341, p<.001)으로 확인되었다.

IV.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63±0.5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37점[32], 3.50점[33] 보다 높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77점[34]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2-34]와 평균점수의 차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학년,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2], 종교유무, 입학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상이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회복탄력성의 정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이공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8],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6]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9]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장 프로그램과 같이 자신의 성공경험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기성취를 높이는 프로그램[35]을 통한 자기효능감 향상은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자기주도성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자기주도성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8]와 유사하다. 자기주도성은 자기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고 회복탄력성은 긍정성의 강화이므로 자기주도성은 회복탄력성을 높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1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셀프리더십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셀프리더십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9-40]와 유사하다. 셀프리더십은 위기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과 관련된다[40].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셀프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문제해결 수업 등의 운영은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짐을 나타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41], 자기주도성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36],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42]와 유사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의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으로 확인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증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증진은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한 점을[45]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한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J.K. Ko, Y.I. Park, J.A. Kim, M.S. Chung, K.S. Bang, M.A. Choe, et al., "An identification study on core nursing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663-674,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663>
- [2] J.K. Goh, "The differences of stressors at grade and ways of coping i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Vol. 5, No. 2, pp. 79-86, 2015.
- [3] Y.K. Kwag, "Effect of self esteem, ego 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 [4] H.Y. Lee, and H.J. Cho, "The effect of resilience on perceived stress-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emotion and cognitive flexibil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8, No. 1, pp. 147-168, 2016. DOI: <https://doi.org/10.1037/a0012840>
- [5] J.W. Kim, "Resilience", *Wisdomhouse:Seoul*, 2011.
- [6] R.E. Wood, and A. Bandura, "Impact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self-regulatory mechanisms and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6, pp. 407-415, 1989.
- [7] H.I. Park, "The effects of depressio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work productivity among bull-collar worke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8] Y.J. Jeong, and S.Y. Joo, "Relations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general education of freshmen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Learning-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4, pp. 115-128, 2022. DOI: <https://doi.org/10.1037/a0012840>

- org/10.22251/jlcci.2022.22.4.115
- [9] H.J. Heo, "Effects of self-efficac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f nursing students on their drinking motiv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3, No. 1, pp. 301-314, 2022. DOI: <https://doi.org/10.22143/HSS21.13.1.22>
- [10] W.Y. Shin, M.G. Kim, and J.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0, No. 4, pp. 105-131, 2009.
- [11] M.S. Knowle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Y: Cambridge book company.
- [12] H.R. Lee, and M.S. Cheon,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levels on job valu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Korean women",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6, No. 2, pp. 411-444, 2003.
- [13] S.B. Min, and J. Kim, "The effects of grit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7, No. 2, pp. 125-138, 2018.
- [14] Y.K. Shin, M.S. Kim, and Y.S. Ha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 No. 3, pp. 313-340, 2009.
- [15] J.S. Le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53-26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53>
- [16] J.I. Kim,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5, pp. 253-262,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5.253>
- [17] H.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27>
- [18] S.Y. Bang,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humanity, and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6, pp. 409-418,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6.409>
- [19] Y.E. Lee, E.Y. Kim, and S.Y. Park,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3, No. 3, pp. 385-393, 2017. DOI: <https://doi.org/10.4994/chnr.2017.23.3.385>
- [20] S.J. Yoon, "Effects of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perceived stress toward resilience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g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4, pp. 205-212,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4.205>
- [21] H.R. Yang, E.M. Kim, M. Yu, S. Park and H. Lee,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3, pp. 337-346, 2015. DOI: <https://doi.org/10.7475/kjan.2015.27.3.337>
- [22] A.Y. Kim, and J.E. Cha, "Self-efficacy and measurement", *Proceeding of Winter Conference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pp. 51-64, 1996.
- [23] A.Y. Kim,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1, No. 2, pp. 1-19, 1997.
- [24] L.M. Guglielmino, "Development of the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i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Georgia, GA
- [25] C.J. Kim, K.S. Kim, K.O. Yoo, and G.H. Gil, "A study on develop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for primary school teachers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2, No. 1, pp. 1-25, 1996.
- [26] Y.E. Lee, "Effect of the collective 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learning satisfaction among study-group participating public officia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10.
- [27] D. Y. Lee, and J. S. Moon, "Psychological safety and creative performance: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learning and the moderating role of self-directedness",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ol. 24, No. 1, pp. 31-53, 2021. DOI: <http://doi.org/10.24991/KJHRD.2021.03.24.1.31>
- [28] C.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 J. 1983.
- [29] H.S. Kim,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3.
- [30] K. Reivich, and A. Shatté,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way Books. 2003.
- [31] J.H. Kim, "Recovery resilience. A pleasant secret that turns trials into luck", Goyang:Wisdom House, 2011.
- [32] H.R. Bae, "An effect of college students' resilience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Kyonggi, 2012.
- [33] J.S Le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53-26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53>
- [34] Y.J. Kim, "Influence of self-esteem, resilience, self-leadership on persona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7. No. 4. pp. 258-269, 2023.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3.6.17.4.257>
- [35] H.G. Son,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 14. pp. 53-61, 2021.
- [36] D.S. Soon, and Y.H. Moon,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resilience of social welfare majors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12. No. 1. pp. 48-69, 2011.
- [37] J.M. Shin, and Y.S. Cho, "The effects of proactive personality on resilience & career resili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9. pp. 339-353,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9.339>
- [38] M.J. Le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related to online clas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7. pp. 441-449, 2021.
- [39] K.W. Seo, and H.K. Moon,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resilience, self-efficacy, self efficacy of caree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6. pp. 233-242, 2018. DOI: <https://doi.org/10.21742/AJMAHS.2018.06.16>
- [40] J.H. Ryu, and J.H. Cho, "Influencing of resilience and innovative organization cultur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2. pp. 525-534, 2018. DOI: <https://doi.org/10.21742/AJMAHS.2018.02.79>
- [41] Y.J. Jee, and K.N. Kim,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 nursing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2. pp. 19-27, 2016.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6.12.09>
- [42] J.Y. Son, J.Y. Park, E.K. Lee, E.W. Lee, and S.M. Choi, "The mea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leadership and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16. pp. 233-249, 2022.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6.233>
- [43] J.G. Dyer, and T.M. McGuinness,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 10. No. 5. pp. 276-282, 1996.
- [44] J.S. Lee,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self-directed learning", Master's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2016.
- [45] R. B. Brooks, and S. Goldstein, "Nurturing resilience in our children: Answers to the most important parenting questions", New York: Contemporary Book, 2003.

※ 이 논문은 2023년도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발전기금 교수연구지원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